

‘핵인싸’ 조정석 ‘애교짱’ 유연석 ... 진짜 누굴 뽑지?

‘슬기로운 의사생활2’ 4총사 중 당신의 남자친구감은?

조정석: 못하는게 없는 사기 캐릭터
유연석: 젠틀하지만 연인엔 애교맨
정경호: 사랑엔 허당인 완벽주의자
김대명: 연애는 초보... 키우는 재미

친한 친구가 아니라면, “묘하게 선을 긋는다”고 느낄 만큼 타인에게 지나치게 정중하다. 평소에는 다른 사람이 팔을 잡는 것도 불편해하는 ‘철벽’이지만, 연인에게는 시도 때도 없이 뽀뽀할 정도로 애교가 넘친다. 다만 병원 곳곳에 연자들이 숨어 있다. 환할한 키에 멋진 외모, 티 없는 성품으로 못 여심을 사로잡았으니, 혹여나 그에게 흑심을 품는 자가 다가오는지 ‘사주경계’는 필수다.

● ‘츨데레’ 정경호 (김준원·홍부외과 부교수)

차가운 정도로 쌀쌀맞고 인정머리 없어 보이지만, 속은 깊고 따뜻하다. ‘츨데레’라는 표현이 딱 어울린다. 일터에서는 완벽주의 그 자체이다. 수술 도중 “이 환자 나이는?”이라는 돌발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인턴에게 “너 여기 놀러왔어?”라며 버럭 불호령을 내리는 건 예사다. 그럼에도 후배들과 간호사, 환자들은 모두 안다. “누구보다 속정 깊은 참된 의사”라는 사실을.

게다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허당’이 따로 없다. 여자친구가 원한다면 짹짹 놀랄 만큼 매운 자장면도 군말 없이 함께 먹어준다. “사랑한다”는 한 마디에 해맑게 웃으며 녹아내리는 모습은 귀엽기까지 하다. 여자친구의 꿈을 묵묵히 응원해주는 든든함도 갖췄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반전 매력’의 소유자이다.

● ‘은둔형’ 김대명 (양석형·산부인과 조교수)

인듯 보면 ‘은둔형’이다. 극한의 내향적 성향으로 사람들이 가득한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것조차 질색한다. 세상 무뎠듯해, 그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날 싫어하나” 오해하기에 십상이다. 유일한 취미는 예능 프로그램 시청. 오죽하면 병원 사람들 사이에 “집에 100인치 TV만 4대”라는 소문이 났을까. 20년 지기 친구들은 그가 애청하는 예능프로그램 방송 시간이 되면 알아서 자리를 비켜줄 정도이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새로운 매력을 발견해가는 재미가 있다. 세심하고, 조용히 배려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안다. 숨겨진 다정다감한 면모를 발견했다면 그에게 빠져드는 것은 한순간이다. 연애에 있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줘야 하는 초보이지만, ‘키워가는’ 뿌듯함이 쏠쏠하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여기, 네 명의 ‘남친 후보자’들이 있다. 저마다 개성도 다르고, 일터와 일상 속 모습도 180도 판판이다.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후보자들은 현재 안방극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2’의 주인공 조정석, 유연석, 정경호, 김대명이다.

비록 극중 캐릭터이지만, 보면 볼수록 탐난다. 종합병원 울재병원에서 4인4색의 로맨스를 그려가는 이들을 두고 각종 SNS와 팟캐스트 등 온라인상에서는 ‘이상형 월드컵’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극중 20년 지기 친구 사이라도 성격부터 말투까지 달은 점이 전혀 없어 ‘선택 장애’를 안길 정도다. 당신이라면 ‘남친’ 또는 여동생의 ‘남친’으로 누구를 택할 것인가.

● ‘핵인싸’ 조정석 (이익준·간담체외과 조교수)

부족한 게 없다. 사회성, 인간성, 도덕성... 뭐 하나 나무랄 데 없다. 게다가 유머감각까지. 때때 장난기가 넘치고 활달하다. 함께 있으면 덩달아 즐거워져 그가 있는 곳에서는 늘 웃음꽃이 활짝 핀다. 새내기 인턴부터 환자 가족까지도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싸’(인사이다·모두와 잘 어울리는 활발한 사람)이다.

그래도 진지할 때에는 한없이 진지하다. 병원장 앞에서 할 말은 다 하고, 자신의 잘못도 금세 반성할 줄 안다. 일단 똑똑하다. 서울대 의대 99학번 동기들 사이에서는 “매일 나이트에서 놀기만 했는데 수석으로 졸업한 ‘포라이’로 소문이 자자하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완벽한 ‘사기캐’이다.

● ‘애교 남친’ 유연석 (안정원·소아외과 조교수)

별명이 하나 있다. ‘부처’. 신부를 꿈꿨을 만큼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화내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다. 아이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친절하다. 환자의 상태에 웃고 우는, 공감 능력 최고의 의사이다.



직장 동료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인성·머리 좋은 이익준 62.3%
완벽주의 김준원은 낮은 지지
팀장급선 ‘안정원 캐릭터’ 1위

네 명의 ‘남친 후보자’ 가운데 직장 동료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굴까.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1056명을 대상으로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 유형’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성 좋고 협력이 잘 되는”(62.3%) 이익준(조정석)이 으뜸이다. 머리가 좋은 천재적인 업무 능력자이자 분위기 메이커로 밎지 않은 ‘오지라퍼’(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다.

2위는 유연석이 연기한 ‘바른생활형’ 안정원(48.3%). 홍일점 채송화(전미도)는 남자 못지않은 대장부 스타일로 후배들을 잘 이끌어 42%의 지지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4위는 공감능력이 뛰어나고 인간적이나 표현하지 않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은둔형’ 양석형(김대명)이 차지했다. 12.5%가 뽑았다. 친화적이지는 않지만 뛰어난 능력으로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까칠한 완벽주의’ 김준원(정경호)이 그 뒤(9.5%)를 이었다.

그렇다면 팀을 이끌어가는 관리자급(팀장급)이 선호하는 동료 유형은 어떻게.

팀장급 직장인 중에는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 유형 1위로 안정원 캐릭터를 꼽은 응답자가 51.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익준(46.2%), 채송화(40.0%), 김준원(13.8%), 양석형(9.7%) 순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2’의 주인공들은 목하 연애 중이거나 ‘뽀’를 타고 있다. 1. 조정석(왼쪽)은 99학번 동기이자 신경외과 부교수 전미도에게 사랑과 우정 사이의 애절한 시선을 보낸다. 2. 유연석(왼쪽)과 외과 레지던트 신현빈은 비밀스런 ‘사내 연애’를 이어가고 있다. 3. 정경호(왼쪽)는 조정석의 동생 광선영과 이별의 아픔을 되새기고 있다. 4. 산부인과 레지던트 안은진은 김대명(왼쪽)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사진제공 tvN



100% 국산

100% 국산 원료만을 사용함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함.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검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